

삼아 해변에서 펼쳐진 56개 민족 대련환



11월 26일, 제 12회 전국소수민족 전통체육경기대회 민족 대련환 행사가 해남성 삼아시 천해해각풍경구에서 거행되었다. 독특한 의식과 다원적인 활동으로 색다른 매력이 펼쳐졌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즐겁게 한자리에 모인 각 대표단은 바다를 등지고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여러 민족의 열정과 문화를 몸입식으로 체험했다.

대련환 행사의 주무대에서 56개 민족의 선수 대표들은 손에 손잡고 함께 노래와 춤을 즐기면서 중화민족 한가정 분위기를 한껏 만끽했다.

이번 민족 대련환은 각각 환영식, 유원부분(游园部分), 련환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손님맞이 대오가 해남 특색의 소뿔나팔소리를 울렸고 련환 남녀들이 춤으로, 나팔소리로 경

사스러운 날을 알렸다. 유원부분은 더욱 다채로웠다. 장소를 천해해각유람구로 선정하고 5개의 전시구역과 2개의 상호련동구역을 설치했으며 4개의

특색 로선을 계획했는데 40가지 활동이 포괄되었다. 시발점에서의 '백화민족무용장(百花民族舞场)'의 민족가무로부터 '기우 백희리(奇遇百戏里)



▲ 연기자들이 대련환 야회 현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 신화사

의 마술쇼, 또 '중국열풍 무형문화유산산거리'의 무형문화유산 체험 등에 이르기까지 해남 문화를 다양하게 전시했다. 나아가 천해해각 옆에서 열린 파도 타기 음악회는 환희의 고조를 이루었다.

비록 띄어벌이 내리쬐고 땀이 얼굴을 적었지만 길림성대표단의 련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선수들은 환한 웃음으로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여러 민족 선수들, 그리고 연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며 우의를 다졌다.

특히 민족놀이 체험활동 프로그램에서 우리 성 선수들은 지난 며칠 동안 시합에서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달리 앞다투어 참여하여 여러 민족의 '중국열풍'과 무형문화유산을 몸입식으로 체험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문예공연 순서에서 우리 성 대표단의 관람 대오는 또 흥겹게 공연을 관람하고 눈을 떼지 않고 주무대에 집중하면서 해변 남쪽의 독특한 여러 민족 예술 분위기와 주최측의 손님 접대를 한껏 느꼈다.

문예공연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어우러지다', '산과 물이 서로 이어지다', '열정의 포옹' 등 3개 장으로 나뉘었는데 귀에 익숙한 여러 민족의 가곡들이 하나하나 선보여졌다. 이와 더불어 국가무용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무용 프로그램과 초청된 유명 예술가, 여러 민족 우수한 예술가들의 현장 공연은 관중들로 하여금 해변의 석양 아래에서 민족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문예성연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 길림일보



연변 현지 탐방...

장영그룹, 영화 《오대징》의 각본 창작 추진



영화 《오대징》의 각본 창작을 다그쳐 추진하기 위해 최근 장영(长影) 그룹 관계자들은 각본가이며 감독인 후량과 함께 연변으로 와서 현지 창작 취재를 진행했다. 일행은 애국장령 오대징의 국토와 변강을 지킨 빛나는 과정을 되새겨보면서 민족영웅의 '촌토촌심(寸土寸心)'의 애국 감정과 숭고한 정신을 깊이 느끼고 체득했다.

창작팀 일행은 선후로 도문과 훈춘 두 지역에 가서 톡톡히, 방전에 국주의교양기지, 오대징기념광장 및 변경 동주유적(铜柱遗址)을 참관하면서 정치적으로 쇠퇴했던 청나라 말기 1880년에서 1886년 사이 애국장령 오대징이 흥차대신의 신분으로 몇몇하게 짜리르씨야의 야만적인 침략에 저항하고 국토와 국경을 고수한 간고한 과정을 깊이있게 료해했다.

현지 방문후 창작팀 일행은 또 현지 당사판공실, 문사 전문가, 학자

들과 깊이있는 좌담과 교류를 갖고 영화 창작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

각본가이며 감독인 후량은 이번 취재 조사연구는 수확이 아주 많다면서 각본 창작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졌고 귀중한 소재를 축적했으며 앞으로 전개될 각본 창작 작업에 충실한 령강 계획과 풍부한 감정 개발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사연구에서 국가리악과 민족존엄을 수호한 애국장령 오대징의 간절한 애국심과 불굴의 민족혼을 깊이 느꼈으며 이 또한 각본 창작을 추진하는 데 객관적인 력사사실 기초를 제공해주었다고 표했다. 이어 장영그룹에서는 영화 창작에 최선을 다하여 영화 《오대징》을 중국 정신을 고양하는 시대의 우수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길림일보

정호, 삼성컵 월드바둑마스터스서 우승



중국바둑협회 소식에 따르면 2024 삼성컵 월드바둑마스터스가 22일 한국 고양에서 막을 내렸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중국 선수 정호 9단이 백 불계승을 거두며 동류 선수 당의비 9단을 격파하고 총점 2대 1로 우승을 지켜냈다.

3분기 최종국의 앞선 1, 2국에서 먼저 30세의 당의비가 상대의 실수를 틈타 제 1대국을 역전승하고 이어 24세의 정호가 제 2대국을 완승했다. 제 3대국 결승에서는 정호가

먼저 포석단계에 상대를 앞섰다. 그러나 104수에 이르러 백을 둔 정호에게 문제가 생겨 AI의 승률로는 당의비가 우위를 점했다. 그런데 불과 10수 만인 제 113수에 이르러 당의비도 실수를 범했다. 이를 놓치지 않은 정호는 114수로 재차 선기를 점했고 그 뒤 이어진 경기에서 정호는 민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해 쌍방의 격차를 확대했다. 결국 248수에 이르러 당의비는 패배를 인정했다.

한편 정호선수는 이번까지 세번째로 세계급 대회의 결승에 진입했고 또 세번 모두 우승 보좌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정호는 중국팀의 가장 강한 라이벌이자 한국에서 등급점수 랭킹이 1위인 신진서를 꺾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삼성컵에서 중국팀은 표현이 출중했는바 10명의 선수가 16강에 진입했고 7명 선수가 8강을 차지함과 과 아울러 4강 명액을 모두 가져왔다.

/ 신화사



길림성 선수들 씨름과 그네 종목서 좋은 성적



27일, 길림성대표단 운동선수들은 제 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특히 민족씨름 종목에서 2개의 1등상을 따내며 사기를 진작시켰다.

오전에 진행된 씨름 62키로그램급 경기에서 신해룡이 침착하게 기회를 잡고 상대방 선수에게 유력하게 반격하면서 경기장 관중과 심판의 인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우승을 따냈다. 오후에 진행된 씨름 74키로그램급 경기에서 이 종목의 지난 대회 우승자인 유택군이 뛰어난 씨름 기교와 탁월한 신체소질을 보여주었다. 유택군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순식간에 상대방을 넘어뜨려 관중들의 박수를 받은 동시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택군은 명실상부한 우승자였는바 경기장에서의 그의 표현은 여러 민족 운동선수들의 단결, 우의, 진보의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다.

신해룡, 유택군이 우승을 차지한 외에 팀 동료인 정일수, 김진우, 오민규, 로우향, 한영훈, 최지성도 각각의 체급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 길림성대표단을 위해 2등상 2개와 3등상 4개를 따냈다.

한편 이날 길림성 선수들은 그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55키로그램급이상 싱글고도 종목에서 조역맹(赵亦萌)이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어려운 높이에 성공하면서 기대에 부응해 정상에 올랐다. 팀 동료인 정우진, 심비와 리미진도 55

키로그램급 싱글고도, 55키로그램급 이상 싱글고도 종목에서 2등상, 55키로그램급이상 싱글고도 종목에서 3등상을 차지했다.

/ 길림일보



장백산 총 258호 2024년 제 6호

권두언
임 백 문학은 인류 미래상의 조형자

리홍규 붉은 천 한조각 (장편소설, 연재 3)

문운룡 상그릴라는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기행수필)
김동진 시월과 단풍
류서연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더냐

장백산 특별조명
홍길남 매체와 함께 36년 (실화)
홍길남 매체 실무 '현장보고서'(작가노트)

중단편소설
백 한 도깨비방망이를 지닌 소녀 (단편소설)
리병균 그림고 싶은 (단편소설)
문설근 친구 (단편소설)

시
박찬휘 고향집 옷집계 (외 3수)
김택만 호박 (외 2수)
리성비 자유 (외 1수)
강선화 빈 거미줄 1(외 1수)
유 려 해물 된장국
리정희련꽃 (외 1수)

장백산 특집 - 중년 슬럼프
심명주 신중년이 온다 (수필)
김관용 우리 문학에서의 문화수필의 조용한 현신 (평론)

김영해 소설코너
김영해 메이트 (단편소설)
배 흥 김영해 소설에 나타난 젠더 인식과 여성의 주체적 자아 찾기 (평론)

장편기획연재
리송국 혈의 무血之舞 (장편소설, 연재끝)
한영남 인물형상부각으로부터 들여다본 조선족 삶의 축소판 (평론)
박문봉 신해혁명에 참가하여 중국혁명가들과 교류교제한 조선민족 반일지사 김규홍 (인물전기)

수필
윤운진 진희와 그의 500명 장사들의 충혼을 찾아서 (기행수필)
엄정자 가마쿠라의 바람이 불어온다
김창영 내 안의 인생공부 (외 1편)

장백산 루제 258
칼라 4 허명철 사진 & 리임원 시 가을바람 (사진과 시)
칼라 9 임백 문학은 인류 미래상의 조형자 (권두언 원문)
장 광 표지그림

《长白山》2024年第六期电子版已上线!
《장백산》2024년 제6호 전자잡지 출시!

支持整市购买或单篇购买。
→点击图片购买专栏,或在专栏目录中选择您想阅读的文章点击购买内容,支持您喜欢的作者!
→购买后,可添加至我的收藏,以便随时查阅。
点击左上角... → 收藏